

제주민속문화특징강좌

제주 전통 제례 문화

199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목 차

1. 제사(祭祀)의 뜻.....	1
2. 제사(祭祀)의 구분.....	2
3. 기제사(忌祭祀)	3

濟州傳統祭禮文化

吳 文 福(東洋文化研究所長)

1. 제사(祭祀)의 뜻

제(祭)자의 뜻은 “사람이 귀신을 극진하게 섬긴다.”이고, 사(祀)자의 뜻은 제(祭)자의 뜻과 함께 해(歲)의 뜻을 가졌으므로, 제사(祭祀)라는 말은 “해마다 귀신을 극진하게 섬긴다”는 뜻이다. 제사(祭祀)를 제향(祭享)이라 부를 때도 있는데, 이 때의 향(享)자의 뜻은 “드린다. 바친다(獻)”의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러므로 제향(祭享)이라고 하면 “술과 안주를 또는 희생을 바쳐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다. 술에는 언제나 안주가 따르므로 안주와 함께 올리는 술잔을 초헌(初獻), 아헌(亞獻) 등으로 헌(獻)자를 쓰는데 헌(獻)자에 개견(犬)자가 붙어 있음은 안주를 뜻함이다. 주향(主享), 배향(配享), 종향(從享) 등 신을 모시는 위치나 차례를 향(享)자로 표시함은 술잔을 드리는 차례를 뜻함이다.

제사(祭祀)의 대상이 되는 신(神)은 어떠한 존재인가? 신은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어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며 밝게 어디에나 통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神)이 없는 형상이 없고, 신이 없는 장소가 없는 것이다. 신(神)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곳에 모여지며 정결한 곳에 머무르므로 하늘의 신은 해에 모여지고(棲于日), 사람의 신은 눈에 모여진다(棲于目)고 한다. 천하의 모든 물건이 양(陽)과 음(陰)의 두 가지 기(氣)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神)도 역시 그러하여 양(陽)과 통하는 신(神)을 신(神)이라 하고, 음(陰)과 통하는 신(神)을 귀(鬼)라 하나, 하나(一氣)로 볼 때는 귀신(鬼神)이라 한다. 또 조상의 신(神 : 靈魂)을 신(神)이라 하고, 조상

의 신(神)이 아닌 신(神)을 귀(鬼)라 하기도 한다.

이에 미루어 제사(祭祀)의 뜻을 풀이하면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차례에 맞게 의식을 갖추어 제수(祭羞)를 받쳐 극진하게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다.

2. 제사(祭祀)의 구분

제사(祭祀)는 부모·조상을 섬기는 제사(祭祀)인 사선제(祀先祭)와 그 밖의 자연 즉 천신, 지신, 해독(海瀆) 등과 위대한 인물 즉 선성(先聖), 선왕(先王), 선현(先賢)을 섬기는 사신제(祀神祭)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사선제(祀先祭)의 제례의식은 흉례(凶禮)와 길례(吉禮)로 구분되지만 사신제(祀神祭)는 이 구분이 없이 모두 길례이다.

사선제(祀先祭)에서 흉례의 제의(祭儀)는 일포(日晡), 천구(遷柩), 발인(發靱), 파빈(破櫛) 일이 있을 때 알리는 의식인 고유(告由)와 초하루와 보름 등 일정한 날짜에 간략하게 올리는 제의(祭儀)인 참의(參儀),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등이 있는데, 제사(祭祀)의 대상은 돌아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당에 모셔지지 못한 조상이다. 길례의 제의(祭儀)는 초하루·보름과 집을 오래 떠나 있으려 할 때, 오래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의 참의(參儀)와 혼례(婚禮), 실화(失火), 증직(贈職), 등과(登科)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유를 고하는 고유(告由)와 새로운 음식이나 절식(節食)을 올리는 천신(薦新)과 기제(忌祭), 묘제(墓祭), 시제(時祭), 영분(榮墳) 등의 제의(祭儀)가 있다. 제사(祭祀)의 대상은 고조 이하의 조상과 친진(親盡)한 윗대 조상이다.

사신제(祀神祭)의 제의(祭儀)는 신격(神格)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중소사(大中小祀)로 제의(祭儀)가 달라지고, 제수(祭羞) 즉 변두(籩豆)와 희생(犧牲)의 숫자가 달라진다. 또 모든 제수(祭羞)도 날 것을

사용한다. 사우(祀宇), 단소(壇所)의 수리, 이안(移安), 환안(還安)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의 고유(告由)와 봄, 가을이거나 일년, 사시절 등 일정한 기일에 올리는 향사(享祀), 석전(釋奠)·석채(釋菜) 등의 제의(祭儀)가 있다.

자연을 섬기는 제사(祭祀)의 대상은 천신(圜丘壇), 지신·농신(社稷壇), 바람·구름·우뢰·비(山川壇), 명산¹⁾대천²⁾(各山川壇), 바다(襄陽, 羅州, 豐川), 귀신을 관장하는 신(城隍壇), 선농(先農壇), 누에를 관장하는 신(先蠶壇), 말을 관리하는 신(馬祖壇), 벌레를 관리하는 신(醢祭壇), 나쁜 질병의 신(厲壇) 등이다. 선성(先聖), 선왕(宗廟), 선현(先賢)을 섬기는 제사(祭祀)의 대상은 선성(先聖)인 공자, 각 왕조의 시조, 본조의 선왕(宗廟), 국현(國賢), 향현(鄉賢) 등이다

위에 열거한 제의(祭儀)를 시간 관계로 전부 고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제례에서 가장 많이 설행되는 제주 전통 기제사(忌祭祀)에 대한 제례의 종류로서 흥례·길례의 뜻을 설명하고, 제사의 봉제, 제사 대상자, 제사날, 제수의 종류와 조리법, 진설법과 진설예시, 제례의 순서 등을 살펴봄으로서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3. 기제사(忌祭祀)

제사(祭祀)는 부모 조상에 대한 효도의 연장으로 살아 계신 때 극진히 효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 잊지 못하여 살아 계신 것과 같이(如在) 받드는 의식으로 비록 먼 조상이라 할 지라도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근본에 대한 당연한 보답의 의식이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엄격하게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자연히 조상의 영혼이 경외의

1) 智異山, 三角山, 松岳山, 鼻白山, 雉岳山, 鷄龍山, 竹嶺山, 弓佛山, 主屹山, 錦城山, 木覓山, 五冠山, 牛耳山

2) 伽倻津(梁山), 熊津(公州), 漢江, 大洞江(平壤), 鴨綠江, 豆滿江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제사(祭祀)의식도 일정한 격식이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성정조), 율곡선생의 제의초(祭儀抄 : 1577년), 사계선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 : 1599년), 도암선생의 사례편람(四禮便覽 : 1884년), 가례증해(家禮增解)가 예서(禮書)의 주종인데 우리 고장에서는 예전에는 서책이 희귀하여 여러 예서(禮書)를 두루 구하여 볼 수가 없었으므로 문중이나 지역간에 차이가 많이 되었고, 예법에 어그러짐이 있게 되었는데 특히 제수(祭羞)에 차이가 많다. 떡 종류는 정례보다 종류가 많고 조과류는 이름이 같으나 만드는 법이 틀리며, 육류, 채소, 탕류는 줄어졌고, 포, 식혜 등은 줄어졌거나 이름만 남아 있게 되었다. 이는 물산의 곤핍에 연유된 듯하다.

가. 기제사(忌祭祀)의 봉사자(奉祀者)

① 장자손(長子孫)이 받드는 경우

엄격히 말해서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고 조직에는 정통(正統)이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통(家統)이라 하며 가통(家統)은 장자손(長子孫)으로 이어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제사(祭祀)도 큰아들, 큰아들의 큰아들인 큰손자, 이렇게 장자손(長子孫)이 받든다. 장자손(長子孫)은 조상의 제사(祭祀)를 받들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장자손(長子孫)이 제사(祭祀)를 받들 때의 축문에 봉사자인 자기를 효자, 효손, 효중손, 효현손(孝子, 孫, 曾孫, 玄孫)이라고 효(孝)자를 붙여 일컫는다. 여기에서의 효(孝)는 효도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祭祀)지낼”(권리와 의무가 있는)아들이며 손자라는 뜻이다.

② 차자손(次子孫)이 대리로 지낼 때

장자손(長子孫)이 있지만 연고가 있어 봉제사(奉祭祀)하지 못하고 다른 자손이 대리로 제사(祭祀)를 받들 때는 신위는 장자손(長子孫)과의 관계로 쓰고, 축문도 장자손(長子孫)의 이름으로 쓰되 축문의 장자손(長子孫) 이름 다음에 “연고가 있어 제사(祭祀)지내지 못하고 누구(장자손(長子孫)과의 관계)로 하여금 대신 지내게 한다”고 쓴다. 또 장자손(長子孫)이 대리로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차자손(次子孫)이 임의로 봉제사(奉祭祀)할 때는 축문에 효(孝)자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사(祭祀)지낼(권리와 의무가 있는)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제사(祭祀)지낼 장자손(長子孫)이 죽었을 때(遞遷祭祀)

장자손(長子孫)인 현손이 죽으면 4대봉사(四代奉祀)가 끝났으니까 기제사(忌祭祀)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현행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조부모까지만 제사(祭祀)지내는 경우도 장손이 죽으면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제사(祭祀)의 봉사(奉祀) 한계를 복(服)을 입는 자손에 근거를 둔 바, 조상이 죽었을 때 복(服)을 입는 것은 장자손(長子孫) 뿐이 아니라 모든 자손이 복(服)을 입으니까, 고조까지 4대봉사(四代奉祀)일 때는 모든 현손이, 조부모까지 2대봉사(二代奉祀)일 때는 모든 손자가 다 죽을 때까지는 제사(祭祀)를 받든다. 그 방법은 당연히 봉제사(奉祭祀)해야 할 장자손(長子孫)인 현손이 죽으면 살아있는 자손중 제일 윗사람(자손)에게로 제사(祭祀)가 옮겨 서열에 따라 모든 현손이 다 죽을 때까지 제사(祭祀)를 지낸다. 이렇게 살아있는 차자손에게로 옮기는 신주를 체천지위(遞遷之位)라 하고, 그 제사(祭祀)를 체천제사(遞遷祭祀)라고 한다.

나. 기일(忌日)이 된 조상의 배우자

기제사(忌祭祀)란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그 조상을 제사(祭祀)지내는 제례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제사(忌祭祀)에 아버지만 제사(祭祀)지낼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도 함께 제사(祭祀) 지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고례(古禮)에 따르면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아버지만 지내고 어머니의 제삿날에는 어머니만 지내며, 할아버지 이상이나 다른 제사(祭祀)도 다 그렇다”(家禮輯覽-父之忌日止設父一位 母之忌日止設母一位 祖以上及傍親忌日皆然)고 해서 제삿날을 당한 조상만 제사(祭祀)지낸다고 했고, 이어서 “제삿날을 당한 한 분만 지내는 것은 예의 원칙이요, 내외분을 함께 제사(祭祀)지내는 것은 예의 근본이 인정(人情)에 있음이니,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제신 조상을 섬길 때 잔칫상을 내외분을 함께 차리는 것과 같이하는 것이다. 미루어 보건대 예(禮)의 근본이 정(情)에 있음이니 한 분만 지낼 수는 없다”(家禮輯覽-蓋止設一位禮之正也 配祭考妣禮之本於人情者也 若以事死如事生鋪筵設同几之意 推之禮之本於情者 亦有所不能已也)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 부모에게 공경을 드림에 한쪽만 드리고 한쪽은 폐하지 않는다. 기제사(祭祀)라고 해서 어찌 홀로 한 분만 지내겠는가. 그러므로 기제사(祭祀)도 마땅히 내외분을 함께 지내야 한다.”(晨夕朔望於父母之敬未嘗舉一而廢一也一忌祭何獨不然 故忌祭乃當兼設考妣位)라고 해 제삿날이 된 조상의 배우자는 함께 지내야 한다고 했으며 우리 나라의 전래의 풍속도 내외분의 제사(祭祀)는 함께 모신다. 즉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어머니도 함께 지내고, 어머니의 제삿날에는 아버지를 함께 지낸다.

다.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날과 시간

①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날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날은 기일(忌日)이고 “기일(忌日)이란 사

람이 죽은 날을 이른다.”(家禮輯覽--有終有之喪忌日之謂也)고 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사(祭祀)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사(祭祀) 준비를 전날 저녁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사(祭祀)를 지내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다. 축문에도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고 써서 “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네”라고 한 것을 미루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을 입제일(入祭日)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돌아가신 날을 파제일(破祭日)이라고 하니까 입제일(入祭日)인 돌아가시기 전날을 제삿날로 오해하고 있다. 입제(入祭)란 제사(祭祀)의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이고, 실제의 제사(祭祀)는 파제일(破祭日)인 돌아가신 날이다.

② 기제사(祭祀)를 지내는 시간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데는 준비절차로서 재계(齊戒. 목욕재계), 설위(設位 : 제사(祭祀)지낼 장소의 설치), 친기(陳器. 제사(祭祀)기구의 배치), 구찬(具饌. 제사(祭祀)음식의 마련)은 제삿날의 전날에 한다.

그리고 제삿날의 궐명(厥明 : 먼동이 틀 때)이 되면 설찬(設饌 : 제수(祭羞)를 진설한다)하고, 질명(質明 : 밝을 무렵)이 되면 제사(祭祀)를 지낼 자손들이 옷을 갈아입고 제사(祭祀)를 지낸다. 분명히 말해서 제사(祭祀)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신 날인 기일(忌日)의 먼동이 틀 무렵인 궐명(厥明)에 제수(祭羞)를 차리고, 밝을 무렵인 질명(質明)에 제사(祭祀)를 지낸다고 고례(古禮)의 각종 예서(禮書)에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사(祭祀)는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에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요사이의 생활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새벽에 제사(祭祀)를 지내는 가정보다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 초저녁일 경우 돌아가신 전날에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의 제사(祭

祀)가 입제일이었다고 여겨서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제사(忌祭祀)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므로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는 돌아가신 날의 일몰 후부터 밤 12시가 되기 이전에 지내는 것이 옳다.

라. 제수(祭羞)의 명칭, 종류, 그릇 수, 조리법

여기에 예시되는 제수(祭羞)의 종류는 전래되는 예서(禮書)등에 의한 상한선이고, 일반화된 것들로서 고위(考位 : 아버지)와 비위(妣位 : 어머니)를 합설하는 경우이다. 형편과 계절에 따라 적의하게 가감하고 조절해도 된다.

(1) 제수(祭羞)의 종류

① 시첩(匙楪) : 1개의 대접에 신위마다 한 벌씩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담는다.

② 잔반(盞盤 ; 술잔과 잔대) : 잔대에 받친 술잔을 신위마다 1개씩과 강신잔 등 모두 3벌이다.

③ 메(飯 ; 제사(祭祀)밥) : 쌀로 지은 뜨거운 밥을 신위마다 1그릇씩 담고 뚜껑을 덮는다.

④ 갱(羹 ; 제사(祭祀)국) : 일반적인 국을 신위마다 1그릇씩 담고 뚜껑을 덮는다. 국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잘게 썬 무를 함께 끓이되 맵거나 짜게 간을 하지 않는다.

⑤ 면(麵 ; 국수) : 국수를 삶아서 건더기만 1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계란 노른자를 부쳐서 썰어 얹기도 한다.)

⑥ 편(餅 ; 떡) : 떡을 해서 굽이 달린 4각형의 접시(편틀이라고도 함, 원형접시도 무방함)1개에 보기 좋게 피고(쌓는다는 말), 현란한 색깔(붉은 팔고물 등)의 고물을 쓰지 않고, 제일 위에 쌀가루로 빗은

웃기(꿀 송편·전야모양으로 빚어 조청을 바른다)를 얹기도 한다. 떡은 보기 좋게 만든 낫쇠시루에 찌서 시루채 올려놓기도 한다.

⑦ 편청(淸) : 보시기 1개에 꿀이나 조청(뭍은 엿) 또는 설탕을 담는다.

⑧ 탕(湯·찌개) : 대개 3탕이라고 해서 고기를 재료로 한 육탕(肉湯), 생선을 쓰는 어탕(魚湯), 채소나 두부를 재료로 하는 소탕(蔬湯)을 쓴다. 형편이 넉넉해서 5탕을 쓰려면 닭을 재료로 하는 계탕(鷄湯), 소의 내장을 재료로 하는 약탕(羊湯)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탕기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⑨ 육전(肉煎 ; 고기부침) : 고기를 다져서 둥근 모양의 전야를 부치거나 대꼬치에 꿰어 부쳐서 굽달린 원형접시 1접시를 권다.(육(肉 : 고기)을 더 쓰고 싶으면 홀수가 되게 2접시를 더 마련한다. 종류는 육회(肉膾)1접시와 수육(熟肉)1접시로 하는 것이 좋다.

⑩ 청장(淸醬 ; 간장) : 간장에 초를 섞고 간장과 식별할 수 있도록 참깨를 띄우면 좋다.

⑪ 어전(魚煎 ; 생선부침) : 생선을 저며서 계란·밀가루를 부쳐서 굽달린 원형접시에 1접시를 권다. 어(魚 : 생선)를 더 쓰고 싶으면 홀수가 되게 2접시를 더 마련한다. 종류는 어회(魚膾)1접시와 기타 생선으로 조리한 것 1접시로 하는 것이 좋다.

⑫ 적(炙) : 술을 올릴 때마다 함께 올리는 특별식이다. 술이 삼헌(三獻 : 세 번)이므로 적도 3적이다. 굽달린 4각형의 접시(적틀이라고도 한다. 원형접시도 좋다)에 소고기를 재료로 해서 고추가루를 쓰지 않고 양념해 익힌(소고기, 간, 돼지고기 등을 대꼬치에 꿰어 익히기도 한다.) 육적(肉炙)이 1접시, 생선 2~3마리를 머리와 꼬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양념해 익혀 만든 어적(魚炙)이 1접시, 닭이나 꿩을 통째로 익힌 계적(鷄炙 : 또는 雉炙)이 1접시이다.(적(炙)은 술을 올릴 때마다 바뀌서 올리는 특별식이다. 그러므로 고인(故人)이 좋아하던

음식을 쓰는 것도 무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⑬ 포(脯·생선 말린 것) : 포는 마른안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굽달린 4각형의 접시(원형접시도 좋다)에 1접시를 담는다. 해산물 말린 것을 껍질을 벗겨 머리와 꼬지를 잘라서 가지런히 담고, 위에는 문어 다리 등을 금관(金冠)같이 여러 가지 물형(物形)으로 올려서 장식하기도 한다. 여유가 있으면 소고기 말린 육포(肉脯)를 쓰기도 한다.

⑭ 해(醢·생선젓) : 일반적으로 조기(石魚)젓을 2~3마리 굽달린 4각형 접시(원형접시도 좋다)에 가지런히 1접시 담는다.

⑮ 나물(熟菜) : 고사리 등 말린 채소

⑯ 나물(生菜) : 미나리 시금치 등 생채소

⑰ 김치(沈菜) : 대개 나박김치를 붉은 색이 나지 않게 담워서 1그릇을 놓는다.

⑱ 간장(淸醬) : 간장을 1종지 담는다.

⑲ 과실(果實) : 과실을 나무에 열리는 생과(生果)와 곡식으로 만들어 익힌 숙과(熟果 : 과자)등이 있다. 굽달린 원형접시에 짝수의 가지 수를 담는다. 접시에 수북하게 담기도 하지만 형편이 허락하면 높이가 가지런하게 보기 좋도록 꺾기도 한다.

○ 대추(棗) : 대추는 손질해서 꼭지 있는 쪽에 잣을 박기도 하여 된다.

○ 밤(栗) : 밤은 원칙적으로 날밤(生栗)을 보기 좋게 깎아(‘친다’고도 한다) 가지런히 된다. (쌍아 올린다.)

○ 감(柿) : 제철에는 홍시(紅柿)나 우린 감을 쓰고, 철이 지난 뒤에는 건시(乾柿·곶감·준시라고도 한다.)를 쓰되 보기 좋게 몇 개를 된다.(이상 三種 조율시(棗栗柿)는 토속과실의 기본이다. 따라서 조율시는 모든 기제사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다.)

○ 사과 :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아래위만 피기 쉽게 도려내고

꼭지를 딴 다음 꼭지 쪽이 위로 가게 된다.

○ 배(梨) : 배는 껍질을 깎고 꼭지를 따고 아래위를 꺾기 쉽게 도려내서 된다. 역시 꼭지 쪽이 위로 가게 한다.

②① 술(祭酒) : 가능하면 약주(藥酒)를 쓰는 것이 좋고, 불가능하면 청주나 기타의 술도 무방하다. 병에 담아 놓고, 주전자는 따로 준비한다.

②① 숙수(熟水·송농) : 제사(祭祀)지낼 때 마지막에 올리는 헌다(獻茶)순서에 중국에서는 차(茶)를 썼지만 우리 나라는 차를 상용(常用)하지 않아 송농을 쓴다. 송농도 통상적인 송농이 아니라 맑은 물에 밥알을 조금 띄워서 신위마다 1그릇씩 준비한다.

②② 현주(玄酒) : 현주는 술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우물에서 떠올린 정화수(井華水)를 병에 담아 놓는다.

(2) 탕(湯)의 유무와 열(列 ; 줄) 수

일반 서민을 위주로 볼 때 모든 예서(禮書)가 4열로 되었는데 율곡의 제의초(祭儀抄)에만 5열로 되어 있다. 그 까닭은 다른 예서(禮書)에는 제수(祭羞)에 탕(湯)이 없는데 율곡의 예서(禮書)에만 탕(湯)이 예시되어 있고, 탕(湯)을 올려놓으려니까 자연히 5열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는 모든 가정이 탕(湯)을 쓰기 때문에 진설의 방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3) 시첩과 반.갱의 위치

합설을 예시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신위의 우측인 서쪽부터 메·갱·시첩의 순서로 해서 서쪽에 고위(考位 : 아버지), 동쪽에 비위(妣位 : 어머니)의 것을 놓았다. 각설을 예시했지만 율곡의 제의초(祭儀抄)에는 서쪽에서부터 시첩, 메, 잔반, 갱의 순서로 놓았다. 산 사람의 경우와 같이 숟가락을 우측에 놓으면서 밥과 국은 산 사람의

경우와 정반대로 좌우가 바뀌어서 기준이 흔들린 감이 있다. 사제의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사례편람(四禮便覽) 및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시첩을 중앙에 놓고 메를 서쪽에 갯을 동쪽에 놓으며 잔반(盞盤 : 술잔)을 메와 시첩의 중간에 놓았다. 이 방법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우를 반대로 설정하고 좌우의 균형을 고려한 것 같아 합리적이다. 초첩(醋楪)의 위치도 제의초(祭儀抄)에는 동쪽 끝인데 반해 기타의 예서(禮書)에는 시첩과 갯의 중간에 놓아 메와 갯이 동서의 양끝에 놓이게 함으로써 좌우균형을 잡았다.

(4) 과실의 진설순서

모든 예서(禮書)가 과실을 남쪽 끝줄에 놓도록만 예시했지 어떤 과실을 어느 쪽에 놓는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과실의 진설순서를 가지고 동조서울(東棗西栗),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시리(棗栗柿梨)라면서 이설(異說)이 분분하다.

- 동조서울(東棗西栗) : 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설은 없으나 대추는 붉은 색이고 홍색은 양방이며 양방은 동쪽이니까 대추를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 나무(木)라고 쓰며, 신주(神主)도 밤나무로 만들므로 밤나무는 곧 귀신이고 귀신은 두렵고 음이며 서방이 음방이니까 밤은 서쪽에 놓는다고 해석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 동조서울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제사(祭祀)음식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붉은 색깔의 대추가 놓인 동쪽부터 대추, 감, 사과 순서로 붉은 색의 과실을 놓고 중간에 조과(造果)를 놓아서 과실의 배치가 울긋불긋한 현란함을 피하려는 배려도 해석된다.
- 조율시리(棗栗柿梨) :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놓는다고만 주장하지 동쪽부터인지 서쪽부터인지 구구하다. 또한 그 이유가 대추

는 씨가 하나이니까 임금이고, 밤은 한 속에 세 톨이 들어있으니
 까 3정승이고, 감은 씨가 6개니까 6판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순
 서로 놓으라는 속설(俗說)이 있다. 그러나 이런 속설을 따른다면
 어찌 사가(私家)의 제사(祭祀)음식에 군왕을 상징하면서 대추를
 쓸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5) 합리적인 진설법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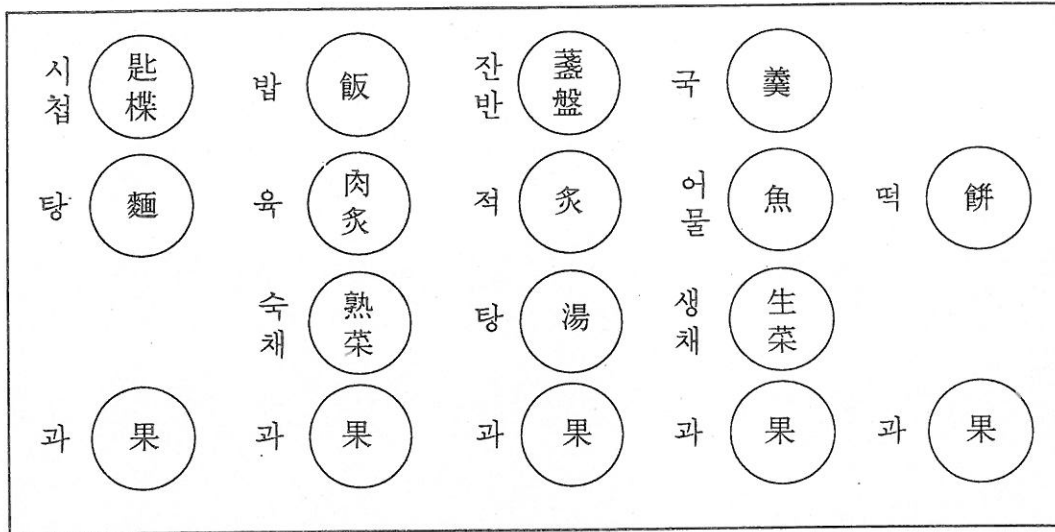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예서(禮書)의 진설 취지를 보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좌우를 바꿔놓고, 좌우의 균형을 잡으며 과실과 간
 이 높게 피는 제수(祭羞)는 끝줄에 놓았고, 메와 갯을 가깝게, 헌작할
 때마다 바꿔 올리는 적(炙)을 중앙에 놓아서 상을 어울리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서 합리적인 제수(祭羞)진설방법
 을 그림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圖說陳需祭

시 첩	匙 櫟	밥	飯	잔 반	羹 盤	국	羹	초	醋
면	麵	육	肉	적	三 炙	어 물	魚	떡	餅
탕	湯	탕	湯	탕	湯	탕	湯	탕	湯
포	脯	숙 채	熟 菜	간 장	清 醬	식 혜	醯	김 치	沈 菜
과	果	과	果	과	果	과	果	과	果

(이 그림은 완전히 진기와 진설이 끝난 뒤의 상태임)

濟州道의 圖說陳需祭



-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에 놓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 동두서미(東頭西尾) : 머리가 동쪽으로 가고 꼬리가 서쪽으로 간다.(생선, 채소 등이 같다.)
- 좌포우해(左脯右醢) : 제사(祭祀)지내는 사람이 신위를 향해서 좌측에 포를 놓고 우측에 생선젓을 놓는다.
- 좌동우서(左東右西) : 신위의 좌측이 동쪽이고 신위의 우측이 서쪽이다. 신위를 상좌에 모셔야 되고 상조가 북쪽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이다. 제사(祭祀)지낼 장소의 구조상 신위를 북쪽에 모시지 못하고 다른 방위에 모시더라도 신위를 모신 쪽을 북으로 간주한다.
- 북상남하(北上南下) : 북쪽이 위이고 남쪽이 아래이다. 신위를 모신 쪽이 상이고 자손이 서 있는 쪽이 하라는 말이다. 따라서 제상위의 제수(祭羞)의 줄도 신위 쪽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5열로 센다.
- 반서갱동(飯西羹東) : 메는 서쪽이고 갡은 동쪽이다. 산 사람의 상차림과 반대로 한다. 자연히 시첩이 중앙이 된다.

- 고서비동(考西妣東) : 신위와 메, 갱, 잔반은 고위(考位) 즉 아버지가 서쪽이고 비위(妣位) 즉 어머니가 동쪽이다. 잔반은 시첩의 서쪽에 고위(考位)의 것을 놓고 시첩의 동쪽에 비위(妣位)의 것을 놓는다. 메와 갱도 그 위치에서 서쪽에 고위(考位)의 것, 동쪽에 비위(妣位)의 것을 놓는다. 비위(妣位) 즉 어머니가 여러분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대로 놓는다.
- 적전중앙(炙煎中央) : 적은 술을 올릴 때마다 바뀌올리는 제수(祭羞)의 중심적 특식이므로 젓상의 중앙이 되게 제3열의 중심에 올린다. 자연히 탕이 제2열로 가고 어·육이 적의 동서(東西)에 놓인다.

(6) 제수(祭羞)진설의 순서

원칙적으로 빈(空)그릇과 차(寒, 冷)게 먹을 수 있는 제수(祭羞)는 먼저 올리고, 뜨겁게 먹는 음식은 뒤에 올린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촛불을 밝힌다.
- ② 제5열에 과실을 올린다. 제사(祭祀)에는 서쪽이 상이니까 바깥쪽에 서부터 서동(西東), 서동(西東)의 순서로 올려서 차츰 중심부를 올린다.
- ③ 제4열의 제수(祭羞)를 제5열과 같은 순서로 서동, 서동의 순으로 올린다.
- ④ 제1열에 시첩 잔반 초첩을 고위 것부터 올린다.
- ⑤ 현주병, 술병, 퇴주기, 주전자, 강신잔, 행주를 주가(酒架)에 올린다.
- ⑥ 육전과 초장, 면을 올리고 어편 떡과 편청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갱과 메를 올린다.
- ⑦ 적(炙)은 초헌 때 육전과 적소금, 아헌 때 제적, 종헌 때 어적을 올린다.
- ⑧ 물은 합문 계문을 한 다음 갱을 퇴하고 물을 올린다.

마. 제사(祭祀)의 순서

- ① 강신(降神) :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제주가 먼저 분향하고 술잔에 술을 반쯤 따라 모사 위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 ② 참신(參神) : 강신을 마친 뒤 제주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 ③ 초헌(初獻) :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분향한 후 술잔을 받아 술을 가득 채운 후 강신 때와 같이 모사에 조금씩 세 번에 나누어 붓고 술잔을 고비 위에 올려놓은 후 수저를 고른다.
- ④ 독축(讀祝) : 축문을 읽는 것으로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의 절차와 같이한다.
- ⑤ 종헌(終獻) :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으로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의 절차와 같이한다.
- ⑥ 첨작(添酌) :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술잔을 세 번에 나누어 가득 채우고 두 번 절한다.
- ⑦ 계반삽시(啓飯插匙) :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놓고 수저를 꽂는 것으로 수저 바닥이 동쪽을 향하게 한다.
- ⑧ 합문(闔門) : 제례 참가자 모두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위께서 음복하도록 3, 4분 기다린다.
- ⑨ 계문(啓門) :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 ⑩ 헌다(獻茶) : 송늬를 갹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송늬에 말고 저를 고른다.
- ⑪ 철시복반(撤匙復飯) : 수저를 거두고 메 뚜껑을 덮는다.
- ⑫ 사신(辭神) : 모두 두 번 절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신 후 지방과 축은 불사른다.
- ⑬ 고리성(告利成)
- ⑭ 음복(飮福) : 조상께서 물려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한다.